



---

이슈브리프  
**ISSUE BRIEF**

---

발행일 : 2020년 11월 26일 (목)

**CONTENTS**

-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
-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
-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

# 이슈브리프

(IB 2020-14)

---

## CONTENTS

I.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/ 1

II.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/ 13

III.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/ 23

---

발 행 인: 지상욱

편 집 인: 김창배

편집위원: 임춘건, 이윤식, 나경태

편집간사: 김진솔

발 행 일: 2020년 11월 26일

발 행 처: 여의도연구원

인 쇄: 디엔시파크

# Contents\_

금주(11월 4째주)는 바이든 외교안보정책, 스타트업 해외사례, 배달라이더업계 실태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. 제1편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전망한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·중국·대북정책, 동맹관 등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·분석했습니다. 제2편에서는 주요국가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분석, 국내 스타트업 진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, 제3편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이 겪고 있는 업계 실태를 진단, 보호정책 마련 등 업계 건의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.

## 제1편: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(이인배 외교통일정책실장)

세계 석학들의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전망하고자 함.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“다자주의에 기초한 대중 압박전략”이 될 것인데, 중국에 대해서 3C(△Cooperation: 협력, △Competition: 경쟁, △Confrontation: 대치) 정책이 혼합된 ‘선택적 대결정책’을 취할 것으로 보임. 특히,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미국 신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상 등 다른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, 이에 발맞추어 바이든 신정부도 지속적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하며 상황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

## 제2편: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(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)

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정부 지원정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민간 스타트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은 여전히 답보 상태. 반면, 주요국들은 △규제완화, △금융지원, △세제혜택, △실패를 용인하는 ‘다브카’ 문화, △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축적해 가고 있음. 특히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미국과 중국 등이 창업환경개선과 멘토링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. 인센티브 다각화, 세금감면 등 민간자본 유치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투자자의 국내 유인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

## 제3편: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(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)

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 확산으로 외식업과 음식배달업의 성장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,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은 열악한 처우와 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. 고용형태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로 인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,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전반의 미비로 인해 유상운송보험 역시 가입하기 힘든 상태임. 이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정비 등 적극적 보호 정책이 필요함

## II.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

작성: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 (jky9618@hanmail.net)

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정부 지원정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민간 스타트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은 여전히 답보 상태. 반면, 주요국들은 △규제완화, △금융지원, △세제혜택, △실패를 용인하는 ‘다브카’ 문화, △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축적해 가고 있음. 특히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미국과 중국 등이 창업환경개선과 멘토링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. 인센티브 다각화, 세금감면 등 민간자본 유치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투자자의 국내 유인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

### 1. 논의의 배경

- 정부는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나, 스타트업 투자는 여전히 민간보다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
- 한편, 해외 주요국은 민간투자 활성화, 스타트업 진작 정책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전개
  - 최근 중국, 싱가포르 등에서 스타트업 증가로 전 세계 투자금액 중 아시아 투자 비중이 (2012년) 11.5% → (2018년) 39.1%로 증가
  - 유럽은 EU 차원에서 스타트업 보조금,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, 개별 국가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공
- 스타트업 활성화는 국내 기술력, 아이디어,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바, 본고는 해외 스타트업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## 2. 해외 스타트업 성공사례

### ① 아시아

#### ① 중국

- 2014년 9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대중창업을 장려하는 ‘대중창업, 만민혁신’ 강조하며 시작
  - 창업을 위한 각종 서류를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통일한 ‘다중합일’ 제도 통해 행정규제를 축소 및 철폐
  - 창업자금 조달 돕기위해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시장인 ‘신삼판’을 2013년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
  -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청년층 중심의 창업지원 플랫폼 ‘중창공간’도 전국적으로 확대
  - 알리바바의 마윈과 같은 창업에 성공한 모델이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
- 개인투자자나 벤처캐피털 투자액의 70% 세제혜택 제공
- 벤처투자자의 투자금 회수기간을 일컫는 ‘엑시트(Exit) 기간’이 4년으로 미국의 7년보다 더 짧음

#### ② 싱가포르

- 돈·인재·네트워크 삼박자를 고루 갖춘 나라
  - 2008년 ‘혁신과 기업을 위한 기초사업’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금융 및 MICE 산업에 스타트업이 가세
    - ※ MICE 산업: 기업회의(meeting), 포상관광(incentives), 컨벤션(convention), 전시(exhibition) 네 분야를 일컫는 서비스 산업

- 금융 선진국답게 초기에는 스타트업 자금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에 역점. 이스라엘과 실리콘밸리의 벤처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1:1매칭 펀드 실시
- 정부의 다양한 스타트업 친화적 정책 추진
  - 스타트업에 투자할 자금지원을 돕기 위해 'Early Stage Venture Fund'를 설립, RIE2020(Research Innovation Enterprise 2020) 계획을 발표하며 4년에 걸쳐 연구개발 투자에 190억 싱가포르 달러 투입
  - 아이디어만 있는 신생 기업 돕기 위해 스타트업SG를 설립해 멘토링, 대출, 펀딩, 컨설팅을 돕는 원스톱 솔루션 제공.
  - 세금면제제도를 통해 신규 기업 설립 장려
- 정부의 일관된 규제정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촉진
  - 혁신 스타트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 불확실성이 적으며 한번 정한 정책은 꾸준히 유지함.
  - 드론 관련 정책이 대표적으로 아시아 최초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때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추진

### ③ 인도

- 젊은이들이 취업보다 창업을 더 좋아하는 나라로 △연 5% 이상 성장, △13억 5000만 인구의 풍부한 내수시장, △30대 이하 젊은 층이 50% 이상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, 산업기반 시설과 일자리는 부족
- 클라우드,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 등 IT 기술 분야 경쟁력이 높으며, 미 실리콘밸리에 비해 인건비가 4배나 싼데도 우수한 엔지니어 등 인적자원이 풍부
- 2014년 모디 총리가 독립 69주년 기념일에 언급한 '스타트업 인디아'를 시작으로 스타트업을 집중육성,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

- 젊은이들에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‘스타트업 인디아’를 적극 홍보,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불완전한 R&D 환경, 세제 등 복잡한 규제 완화에 초점
  - 3년간 법인세 면제, 특허등록세 80%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
  - 지방정부 간 스타트업 지원 경쟁체제 도입
- 모디의 ‘스타트업 인디아’ 구상 덕에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전개, 현재 인도는 가장 빠른 성장세 보이고 있으며 2030년 미국,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

## 2] 서유럽

### ① 프랑스

-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권과 관계없이 10년 넘게 꾸준히 이어온 스타트업 육성정책
  - 2008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실업률이 높아지자, 우파 정권이었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“대출이 없으면 사회보장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”며 실직자, 학생, 퇴직자들에게 규제를 완화하며 창업을 유도
  - 이어 집권한 좌파정권 올랑드 정부도 ‘라 프렌치 테크’ 제도를 선보이며 이전 정권의 ‘마이크로 기업제도’를 확대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
  - 현 마크롱 정부는 실업자가 창업을 하면 수익이 날 때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프랑스 전역에 직원 10인 이하, 연매출 200만 유로 이하인 ‘마이크로 기업’ 100만개 이상 탄생
- 2018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49%가 “마이크로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다”고 답변했으며, 35세 미만 창업 비율이 57%에 달하는 등 청년창업이 활성화

## ② 영국

- 금융위기 이후 런던 빈민지역을 영국판 실리콘밸리 ‘테크시티(Tech City)’로 만들면서 스타트업 육성정책 시작
  - 런던 도심과 불과 10분 거리이지만 임대료가 저렴한 빈민지역에 창업자들이 모여든 것을 영국정부가 주목, 이후 2010년 캐머런 총리가 ‘테크시티 조성안’을 발표
- 2011년 출범 당시 약 100개였던 입주기업이 최근에는 5,000여개가 넘어서는 등 성장세가 뚜렷
  - 테크시티는 구글·아마존·인텔 등 글로벌기업과 수천개의 스타트업이 모이는 지역으로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대결을 펼친 알파고(AI)를 만든 스타트업 기업 ‘딥마인드’(DeepMind)도 이곳에서 탄생
- 테크시티가 명실상부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
  - △창업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‘창업 절차 간소화’, △무일푼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‘자본금 제한 철폐’, △‘자유로운 설립과 폐업’ 등이 원동력 등

## ③ 북유럽

### ① 스웨덴

- 인구 1,000만 명에 연간 창업기업 수가 7만여 개에 달하는 나라
  - 선진화된 복지제도가 스타트업 성장의 기반. 창업에 실패해도 사회안전망인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어 창업의 증폭제 역할
  - 발명자의 특허 소유권을 인정해주고, 대학교수의 산업체 겸직과 파견 근무 허용 및 대학 창업이 용이

- 특히, 창업 초기부터 내수보다 글로벌시장을 공략해 볼보, 이케아, H&M 등 세계적 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는 기반 마련
-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스타트업 성장의 토대
  - 1990년 이전 공기업들의 시장독점으로 규제가 심했으나, 각종 규제 완화로 신생기업이 기존 대기업과 경쟁하기가 쉬운 환경 조성
  - 외국 기업들도 스타트업 인수합병을 할 수 있게 함
- 법인세도 (1991년) 30% → (2020년) 22%로 낮춰 소규모 창업기업들의 세부담을 대폭 줄였고, 2000년에는 상속세 및 부유세를 없애 여유자금이 있는 부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## ② 덴마크

-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년 사이에 3,500여개 이상 기업이 도산, 정부는 3년간 매출 또는 근로자 수가 매년 20% 이상 증가한 '성장형 기업'에 집중 지원
  -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
  - 대학 8곳이 모두 국립대라는 점을 활용해 대학생 창업을 적극 지원. 대학 연구 성과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대학-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창업 생태계 토양 조성
- 든든한 복지제도 및 유연한 노동시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반
  - 고용주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지만 실직해도 최소 2년간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기 쉬움
  - 진로 변경 등 자발적 실업도 많으며, 1년에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옮길 만큼 이직도 잦음

-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적고 학력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문화도 한 몫
  - 높은 소득세율로 소득이 많은 직종이 더 많은 세금을 내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작으며,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학진학률이 40% 정도
  - 기술직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과정 실습으로만 진행되는 기술학교로 진학,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면 높은 소득이 보장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 받는 풍토

#### 4] 미국, 이스라엘

##### ① 미국

- 미국은 '실리콘밸리'로 대변되는 세계 1위의 스타트업 천국
- 2011년 오바마 행정부가 '스타트업 아메리카'라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자금지원, 세제혜택 등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했으며,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'혁신국'을 신설해 규제·절차 개선
  -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벤처캐피털 투자가 2013년 36.4억 달러에서 2018년 99.5억 달러로 173.4% 증가
- 글로벌 IT 기업들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비영리단체 통해 멘토링과 교육을 제공,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
  - 2012~2016년, 미국 5대 IT기업 구글, MS, IBM, 애플, 아마존이 스타트업 420개에 투자. 특히, 구글은 79.3%인 333개 기업에 투자해 우버 등 22개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

##### ② 이스라엘

- 실패를 용인하고 존중하는 '다브카(Davca)' 문화를 스타트업 창업에 적용, 이스라엘은 '종교성지'에서 '창업성지'로 떠오르고 있음

- ※ 히브리어로 ‘그럼에도 불구하고’라는 의미의 다브카는 “실패해도 괜찮으니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하라”는 뜻으로 청년들은 도전하고, 책임은 사회가 진다는 것
- 이스라엘은 창업을 개인의 영리 추구보다는 공공 발전의 성격으로 인식, 실패와 시행착오에 대해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음
- 창업지원으로 생겨나는 스타트업은 매년 1,000개로 이 중 2%만 성공. 정부, 요즈마펀드 등은 실패한 98%의 창업자 지원 재원을 별도로 관리해 실패하기 전보다 20% 이상의 추가 지원을 제공
- 실패한 창업자에게 첫 창업 때보다 더 많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자금을 지원,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
  - ※ 요즈마펀드(Yozma Fund): 벤처캐피탈 자금 공급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(40%)와 민간(60%)이 공동 출범한 펀드로 1993년 출범, 이후 민간으로 최종 이관
- 한 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빨리 키워서 적당한 가격에 팔고,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하는 방식의 ‘연쇄창업’을 활성화
- 주로 첫 번째 사업에서 경험을 쌓고 두 번째, 세 번째 사업에 올인
- 창업부터 엑시트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약 4년 반으로 엑시트 기간 비교적 짧음
- 빠른 엑시트는 결국 활발한 재창업으로 이어져 엔젤투자, 벤처캐피탈 등 견고한 투자 생태계 성장기반이 조성. 반면, 우리나라의 경우 엑시트까지 보통 약 10년 소요

### 3.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

#### ① 주요국 스타트업 지원전략 요약

- 전 세계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의 방안으로 △규제완화, △금융지원, △세제혜택 등에 집중
  - (규제완화) △창업절차 온라인화 등 행정간소화, △자본금 제한 철폐 (영국), △무인자동차 관련 법 제정(싱가포르) 등
  - (금융지원) △해당 기업에 지원한 민간자본에 매칭해 투자(미국), △기금 조성해 VC에 지원(중국), △EU 및 역내국가의 기금을 통한 지원(EU) 등
  - (세제혜택) △스타트업 투자한 주식 5년 이상 보유시 자본이득세 영구면제(미국), △낮은 법인세,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면제(EU), △개인투자자 투자액의 70% 세금면제(중국) 등
  - 특히, 미국과 중국처럼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창업환경 개선과 멘토링에, EU와 같이 민간투자가 부족한 경우 정부의 정책 자금지원에 중점을 둠

#### ② 정책적 시사점

- 스타트업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
  - (중국) 알리바바 마윈이 창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
  - (이스라엘) 실패 경험을 재창업의 기회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'다브카

(Davca)' 문화 도입, 창업 실패 후 재창업시 추가적인 지원

- (덴마크) 기업가정신 확산을 국가전략으로 추진
- (프랑스) 창업 수익 발생 시까지 실업수당 지급

○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위해 민간자본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- 민간자본 투자 유인방식 다각화 필요
- VC 및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금액 정부 투자하는 매칭 지원
- 스타트업 투자자 대상 세금감면,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금감면 혜택 강화

○ 정부정책 자금지원보다 국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함께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투자자의 국내 유인을 위한 노력 절실

- 글로벌VC를 통한 투자유치는 국내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마켓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- 현재 10년 걸리는 엑시트 기간을 단축하고 재창업 함으로써 성공 창업 경험의 선순환 유도

---

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, 대응방안을 담은  
〈이슈브리프〉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,  
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--